

237 무슨 뜻인가? 지금 전 세계 237개국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절대 계획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으셨다는 말이다. 현장에 복음 들고, 구원받은 제자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가라는 것이다. 이 사실을 못 깨닫고, 못 누리면 선교처럼 어려운 것이 없다. 신앙 생활 전부가 마찬가지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시고, 다 준비해놓으신 것이다. 염려하고 걱정할 이유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결론이고(딤후2:4), 역사의 결론이고(마24:14), 우리 인생의 결론이라는 것이다(행1:8). 나와 우리를 통해 모든 민족, 땅끝까지 살려야 하기 때문에 먼저 구원하셨고, 모든 문제 사건을 사용해서 우리를 증인으로 쓰시겠다는 것이다. 램넛트 7명이 그 모델이다. 엄청난 가정의 갈등과 아픔을 가진 요셉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열심히 노력해 성공해서 총리가 되는 것도 목표가 아니었다. 훗날 자기를 판 형제들에게 뭐라고 했는가?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 앞에서 보내셨다”고 했다(창45:5-8). 그래서 언약 가진 백성들에게는 아픔도 아픔이 아니고, 실패도 실패가 아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언약의 절대 여정을 걸어가라는 것이다. 여기서 오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다. 성경에 하나님이 쓰신 모든 인물들이, 램넛트 7명이 단 한번도 성공하려고 애쓴 적이 없다. 오히려 그 욕심을 가지고 인본주의 쓴 사람들은 망했고, 사단에게 쓰임 받았다(사울왕, 유다) 237 이 시대 모든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목표에 방향을 맞추고 산다면 살아가는 것이 절대 응답이고, 하는 모든 일이 절대 축복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그 간증을 하는 시간이 와야 한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목표, 절대 응답인 237선교,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어야 한다. 불신자는 절대로 알 수 없는 다른 힘이고(Nobody), 유일한 힘이고(Unique),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절대적인 힘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누리야 할 세가지 힘을 약속하셨다.

1. 하나님이 구원받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함께(With)”의 힘이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혹시 실패해도 상관없고,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상관없다. 나와 함께 하신 그 분이 누구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시다(18절)

  - 1) 램넛트 7명이 이것을 누린 것이다.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힌 요셉이 승리한 비밀이 이것이다(창39:3,5). 패배자로 살던 80세의 노인 모세에게 8 찾아와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이것이다(출3:12).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누린 것이 이것이다(시23:4).
  - 2) 언제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 ① 영접하고 구원받은 순간부터 함께 하시는 것이다(계3:20, 고전3:16).
    - ② 가장 외로운 그 시간이 최고로 이 “함께”를 체험하고 누리는 시간으로 붙잡아야 한다(우울증과 자살 충동을 이기는 최고의 비밀, 찬송가 “예수가 함께 하시니”).
    - ③ 우리가 실패하고 너무 부끄러운 시간에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다. 본문 16절에 열한 제자에게 부활한 주님이 찾아오셨다고 했다. 17절에 그들은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다고 했다. 같이 실패했지만 유다는 자살로 인생을 끝냈다. 그러나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은 너무 부끄러웠지만 그래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다시 쓰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은 것이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붙잡고 힘을 얻으라. 그때 내 간증을 들어야 할 사람을 만난다.
  2. 여기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힘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만큼 정확하게 준비된 사람을 만날 것이다.

    - 1) 하나님이 준비한 단 한 사람만 만나서 살려도 된다. 그와 내가 함께 임마누엘이 되는 것이다(마18:19-20)
 

세가지로 소통하면서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체험해보라.

      - 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소통해보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받은 은혜를 진실하게 나누어보라.
      - ② 기도 소통을 하라. 하루 한번만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전달된다. 서로에게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는 것이다.
      - ③ 함께 전도할 대상을 기도 제목으로 나누며 기다려보라. 학교와 직장에서 이런 사람 하나만 만나도 축복이다.
    - 2) 일단 교회 안에서 만난 우리 모두는 영적인 영원한 가족이다.
      - ①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찬식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가족이라는 의미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원망들을 일 생각하면 그것부터 해결하고(마5:22), 혹시 형제에게 부족함이 보여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마7:1-5), 내가 먼저 진실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보라고 했다(벧전1:22)
      - ②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 전 성도들이 같이 체험하고 누릴 말씀을 주신다. 그것이 축복의 흐름이 된다. 포럼을 하는 중요한 이유는 이 흐름을 타도록 서로 돕고 격려하는 것이다.
    - 3) 특히 미래를 생각하며 램넛트와 팀을 만들어 이 “함께”를 누리보라.
      - ① 한 가정에 자녀들이 그 가정의 미래인 것처럼 우리 교회의 모든 자녀들은 교회의 미래요, 하나님의 미래다. 어른들이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이것이다. 램넛트가 내 기도의 팀이 되고, 때로는 멘토 역할도 해주고, 할 수 있다면 인턴쉽도 해줄 수 있다면 큰 축복이다. 나중에는 그들이 평생의 팀이 되고, 늙어서도 안 외로울 것이다.
      - ② 사람을 키우라. 직장에서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쓰실 비즈니스와 기업을 생각한다면 이 축복부터 준비하라.
3. 마지막으로 누리야 하는 힘이 원네스의 힘이다.
  - 1) 20절에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이 땅의 모든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원네스 되어야 하고, 그 힘으로만 세계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단체, 종교들이 원네스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 기독교만 놓친 것이다(“캐틀릭”의 본래 의미)
  - 2) 세계를 살리고 로마를 정복한 초대교회는 이 힘을 가지고 있었(복음 공동체, 경제 공동체, 선교 공동체)
 

지금 우리 다락방 운동이 이 힘으로 전 세계를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그것이 램넛트 운동, RUTC, RU, 237운동). 개인적으로 누구보다도 이 혜택과 축복을 받았고, 우리 교회도 그 축복 속에서 여기까지 왔다.

결론-237센터는 이 세가지 힘을 누리면서 전 세계로 갈 수 있는 사명자, 전문인들을 세워서 세계로 파송하려고 하는 것이다.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237 살릴 힘을 누리고, 그 축복의 주역들이 되기를 기도한다.